

전 세계를 강타한 경제 위기 때문에 지구촌 곳곳이 고통을 겪고 고생하는 가운데서도 묵은해를 보내고 새해를 맞이하는 작은 설렘으로 잠시 들떠있는데, 세상을 또 다시 강타하는 소식이 전해졌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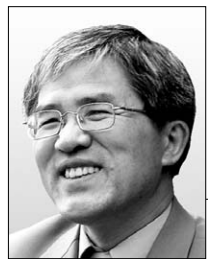
이스라엘이 팔레스타인 가자지구를 공습해서 수백 명이 사망하고, 지상군도 투입할 태세라는 것이다. 대다수 전문가들의 분석으로는 "이번 공격은 총선을 앞둔 이스라엘 연립여당이 강경파 야당과의 선명성 경쟁에서 우위를 차지하여, 선거에서 유리한 국면을 조성하고 집권을 이어가려는 정치적 배경이 강하다"고 한다. 단기적인 관점에서 보면 아마 이런 분석이 크게 어긋나지 않을 것이다.

국제 정치에 있어서는 국내 문제 때문에 엉뚱한 약자를 공격하는 일이 흔한데, 이 점에 있어서 이스라엘-팔레스타인 문제는 항상 가장 확실한 사례를 보여 왔기 때문이다. 만약 순전히 국내 정치적인 목적과 이유 때문에 이번 가자지구 공격이 이루어졌다면, 그리 오래 계속되지 않고 단기간에 끝날 수도 있을 것이나 한편으로는 다행일지도 모른다.

문제는 이스라엘의 일방적인 무차별 공격에 정치·군사적 배경을 넘어서는 근본적인 이유가 있어서, 언제 어디서든 - 아마 영원히 - 재발할 가능성이 있다는 점이다.

이스라엘민족과 팔레스타인민족은 똑같은 아브라함을 섬기는 셈족의 후손들이다. 그런데 위로 멀리 올라가면 같은 조상 아래서 퍼져 나온 두 민족이 이처럼 극한 대립을 하는 이유가 무엇일까?

이스라엘민족은 자신들이 '하느님에게 선택 받은 특별한 종족, 선민(選民)'이라고 믿어왔다.



불자 세상보기

이 병 두 칼럼니스트

팔레스타인은 이스라엘의 이웃

그리고 하느님의 선택과 약속의 증거가 이른바 <구약성서> 내용이라는 것이다. 이 책의 '여호수아서'를 보면, 여호수아가 예리코 전투에 나서서 "남너노소, 소와 양 등 도시의 모든 것을 칼로 찢어서 몰살"시킬 때까지 잠지도 쉬지 않고 밀고 나갔던 장면이 생생하게 묘사되어 있다.

또한 같은 책 '신명기'에서는 "너희 주 하느님이 유산으로 준 이 민족들의 도시에서는 숨 쉬는 것은 아무것도 살려두지 말라. 그러나 가나안... 족은 너희 주 하느님께서 명령하신 대로 전멸시켜야 한다"고 하며, 이스라엘 민족과 공존할 수 없고 말살시켜야 할 대상을 구체적으로 거론하기까지 한다.

<구약성서>를 문자 그대로 해석하고, 그에 따

라 행동을 하는 것이 정당하고 선(善)하다고 믿는 이들에게는 "우리들에게 약속된 땅에서 다른 종족들은 함께 살 수 없다. 흑사라도 이 땅에 살고 있는 이민족이교도(이교도)가 있다면 몰살시켜도 된다"는 확신이 있다.

이들은 심지어 "살인하지 말라"는 계명에 나오는 '사람'은 '동료 유대인'을 말할 뿐이라고 믿는다. 12세기의 유명한 랍비인 모세스 마이모니데스(Moses Maimonides)는 이 계명을 다음과 같이 해석하기도 했다. "누군가가 이스라엘인 한 명을 죽이면, 그는 이 계명을 위반한 것이다. 성서에 '살인하지 말라'고 쓰여 있기 때문이다. 누군가가 목격자들 앞에서 계획적으로 살인을 한다면, 그는 칼로 처형된다. 말할 필요도 없

만, 이교도를 죽인다면 처형되지 않는다."

<구약성서> 가르침과 그에 대한 전통적 해석을 따르면, "이스라엘 군대가 무고한 팔레스타인 민간인을 대량 살상하는 것이 전혀 죄가 되지 않는다." 이것이 이스라엘 사람들이 갖고 있는 확신이고, 이 확신에 따라 앞으로도 이런 공격의 악순환이 그치지 않으리라는 데에 문제의 심각성이 있다.

더욱 심각한 문제는 이스라엘 어린이들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해보아도, 이와 같은 '잘못된 확신'과 별 차이가 없는 결과가 나온다는 것이다. 현재의 세대가 물려나고 새로운 젊은 세대가 이스라엘을 이끌어갈까 된다고 해도 이스라엘의 대외정책이 개선될 여지가 거의 없다는 절망적인 예측이 나올 수밖에 없는 것이다.

이스라엘민족이아말로 수천 년 동안 세계 전역을 유랑하며 핍박을 받아 왔다. 특히 기독교 국가에서는 '예수를 배반한 민족'이라는 억울한 죄명을 뒤집어쓰고, 다른 어느 곳에서도보다 나쁜 처우를 받아왔다. 유대인이라는 이유만으로 부당한 대우를 받고 갈팡질팡 격리 수용 당하거나 추방을 당하기 일쑤였다.

이런 핍박과 고난을 겪은 그들이 이제는 과거 자신들의 모습과 다를 바 없는 팔레스타인 사람들을 상대로 히틀러 독일보다도 더욱 철저한 보복과 무차별 공격을 감행하고 있다.

하지만 중요성과 폭력으로 모든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까? 지금 저들이 보여주는 폭력과 증오심의 과보는 자기 후손들에게 무거운 압박이 되리라는 것을, 이스라엘 사람들 한 명 한 명이 다 잘 알고 있을지도 모른다.

본 칼럼은 본지 편집 방향과 일치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社說

강도 살리고 문화재도 살려야

구립 29일 정부는 '4대강 살리기 프로젝트'의 첫 삽을 떴다. 대운하를 위한 단계별 수순이 아니냐는 의심을 받는 가운데 경북 안동과 전북 나주에서 시작된 이 역사는 자연 파괴와 인근 문화재에 대한 훼손의 우려도 적지 않다.

이를 의식해 문화재청이 대통령 업무보고에서 "매장 문화재를 최대한 보호하면서 사업추진 지연을 극소화하기 위해 관계부처와 긴밀히 협력하겠다"고 밝혔다. 이와 관련한 문화재청의 복안은 문화재의 보존과 활용을 위해 프로젝트의 계획안에 문화재분포 현황을 반영시킨다는 것과 문화재 전문가의 파견, 자체 태스크포스 구성 등이다. 이 프로젝트로 인해 새롭게 발굴되는 문화재 등에 대한 보존과 활용을 최대한 효율적으로 하겠다는 것이 문화재청의 입장이다. 문화재 주무부서의 입장으로는 당연한 것이다.

문제는 4대강 살리기 프로젝트의 가동 시 정부의 상당한 관심 속에 적극적으로 추진되는 만큼, 자칫하면 문화재 관련 업무들이 뒷전으로 밀리거나 아예 무시당하지 않겠느냐는 우려다. 그래서인지 몰라도, 문화재청의 업무보고도 이 프로젝트의 원활한 수행을 위해 최대한 협조하겠다는 다짐으로 들린다.

문화재는 한번 파괴되면 돌이킬 수 없다. 4대강 살리기 프로젝트가 시급을 다투는 사업이 아니라면 오히려 주변의 생태환경 조사와 문화재 처리를 위한 사전 조사와 범람이 수립된 뒤에 공사를 시작했어야 옳았다. 시작부터 거꾸로 되어버린 4대강 살리기 프로젝트와 생태 문화재 보호 및 보존의 관계가 웬지 깨어지지 않는다.

새싹포교의 원칙적인 조건

새싹포교의 중요성은 아무리 강조해도 모자란다. 다종교 사회에서 공격적인 선교마케팅을 하고 있는 타종교에 비해 보편이 좁은 불교는 차세대 포교에 매우 뒤쳐져 있다. 이에 대한 반성이 없었던 것은 아니다. 일찍이 어린이 포교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이 분야에 일생 심혈을 기울인 스님들도 없지는 않다. 문제는 개인적인 원력으로 해결될 문제가 아니란 점이다.

차세대 포교는 개인의 원력을 넘어서서 곳에서 보다 장기적인 로드맵을 그려두고 조직적이고 체계적으로 진행되어야 한다.

조계종 포교원이 2007년부터 3개년 계획으로 어린이 포교를 위한 기틀다지기에 나서 온 것도 '만시지탄' 속에서의 분발이었다. 포교원이 추진한 일련의 사업들이 가시적인 성과를 보이게까지는 다소 시일이 필요하겠지만, 이제 그 마지막 해를 맞아 할 일이 더욱 많은 것 같다.

무엇보다 어린이 포교는 종단적 원력과 스님들의 개인적인 원력이 조화를 이루어야 한다. 과거 원력을 가진 스님들이 외롭게 활약할 때를 생각하면 종단의 지원이 얼마나 절실한가를 알 수 있다. 반대로 종단의 의지가 하늘을 찌를 정도로 사찰의 호응이 없으면 어린이 포교는 불가능하다. 어린이 포교의 절대조건은 종단과 사찰의 의기투합인 것이다. 따라서 이에 대한 필요충분조건들을 먼저 체크하고 종책을 입안하는 것이 효율적인 것이다. 조계종 포교원의 어린이 포교 사업은 올 해가 마지막이 아니라 새로운 시작이다.

황수경(종교대 선학과 강사)

없는 나를 생각하면 가끔 한없는 무력감에 빠지곤 한다. 도대체 내가 이렇게 발버둥 친들이 세상의 부조리와 고통이 해결될 것인가? 어떤 때는 다 때려치고 조용히 산중에서 머슴처럼 살다가 세상을 떠나고 싶은 마음이 드는 때가 한두 번이 아니었다. 그럴 때는 성도하시기 이전의 수행자 신타라를 생각하면서 '아직 한참 수행도 모자란 사람이 망상을 하는구나'라고 스스로를 채찍질한다. 나는 수행자다. 내가 세상을 위해 기도하고 정진한다면 세상은 내 서원대로 바뀌어질 것이다. 정작 부족한 것은 큰 서원과 이를 뒷받침하는 수행이다. 그리고 때로 약해지는 마음 탓이다. 이제 나는 결심한다. 내가 먼저 바뀌자. 그러면 세상도 바뀌어질 것이다.

황수경(종교대 선학과 강사)

100회 회향합니다  
'마음이 바뀌면 인생도 바뀐다'가 100회 회향하게 됐습니다. 일 년 반이 넘는 동안 많은 분들이 외국과 지방에서까지 격려해주신 은혜를 다 표현할 수 없을 것 같습니다. 깊은 감사를 올리면서 마지막 100번째는 독자여러분의 말씀으로 회향하기로 했습니다. 읽으신 소감이나 하시고 싶은 말씀 모두 환영합니다. 함께 동참하시어 소중한 회향의 자리로 만들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seon@hope.korea.com(황수경), 서울 마포우체국사서함 111호 (우 121-041)

“긍정적 사고의 힘을 키워라”



마음이 바뀌면 인생도 바뀐다

97 새해에는 마음을 바꾸고 싶다

를 주고 나중엔 나도 그 말의 대가를 받는 경우가 많았다. 말을 잘 하는 것은 결코 좋은 것이 아니었다. 새해에는 말을 잘하기보다 깊이 생각하고 현명하게 말할 줄 아는 사람이 되고 싶다.

을 했고, 취객은 먼저 피해버리고, 노숙자들의 요구는 무시해버렸다. 하지만 그렇게 하니 마음이 편하지 않았다. 그저 수행자답게 그 모두를 부처님으로 대했으면 자연스러웠을 텐데, 잘 하지 못했다. 알면서도 모든 사람을 부처님으로 대하는 것은 쉽지 않은 일이다. 그러나 끊임없는 수행이 아말로 완성이라는 말을 믿고 열심히 노력할 것이다. 새해에는 사람 따라 차별하지 않고 모두 부처님으로 대해야겠다.

나 먼저 행하면 세상은 따라서 바뀌어

거대한 조직 사회 속에서 일개 개인일수밖에

내 몸의 주인은 내 마음

어떤 일을 할 때 피곤을 느낄 때가 많이 있다. 일하다가 몸이 피곤해지면 곧 그 일이 하기 싫어진다. 생각해 보니 나보다 나이 많거나 약한 사람도 잘 해내고 있었다. 결국 다른 사람보다 빨리 피곤을 느끼는 것은 몸 때문이 아니고 마음 때문이었다. 내 몸의 진짜 주인인 마음을 모르고 몸만 힘들다고 했다. 마음이 주인이 되면 얼마든지 일을 해낼 것이다.

말을 현명하게 하는 사람이 되자

나는 말을 잘 하는 것이 커다란 능력이라고 생각했었다. 남들과 이야기 할 때는 항상 주도권을 잡거나 말을 많이 했고 내 판단 하에 상대에게 극단적인 발언을 많이 했다. 그러면서 나 스스로는 상대방을 제압했다고 자부하곤 했다. 그런데 알고 보니 나 위주로 말하는 것은 결국 남에게 상처

모든 이들을 부처님으로 대해야

예전엔 지방에 살다가 서울에서 사람들과 같이 버스와 지하철을 타고 다니다 보니 어려운 점이 많다. 타종교인의 적대적인 시선과 언행을 감수해야 하고, 취객들의 끝없는 신세타령도 들어야 하고, 노숙자들의 온정을 바라는 손길에 응해야 한다. 처음에는 적대적인 사람에게는 맞대응

“자연이 준 최고의 선물” 천/년/초를 아십니까?



천년초는 봄, 여름, 가을, 겨울 4계절을 노지에서 자연상태 그대로 자라는 다년초 식물로 혹한의 영하 20°C에서도 살아나는 강인한 생명력을 가진 우리나라에서만 자생하는 토종 선인장입니다. 특히, 어떠한 병충해도 죽지 않고 농약, 제초제, 화학비료를 일체 사용하지 않는 무공해 자연식품이며 “자연이 인간에게 준 최고의 식물”이라 불릴만큼 어떤 식물과도 비교할수 없는 높은 성분률 함유한 소중한 우리의 자원입니다.

직접 몸으로 느껴 보십시오.

한겨울 영하 20°C의 혹한 속에서도 살아나는 강인한 생명력의 천년초! 천년초의 놀라운 생명에너지를 직접 체험해 보십시오.

\*천년사랑에 사용하는 천년초는 유기농 천년초 100%를 사용해 만듭니다.



무료샘플신청 02)780-3989 (천년초 책자와 농축액 2일분을 무료로 보내드립니다)

나무아미타불 1000일 기도 안내

귀의 삼보하옵고,

『대집경』에 이르시기를 말세 중생들은 여러 부처님을 염하면 마음이 산란하여 定(정)에 들기 어려우니 오로지 서방정토 아미타불만을 염(염)하라 하시었기 때문에 ...,

금번 팔공산 지묘동 대원사에서는 1000일간 아미타불 기도를 봉행하여 다검생래로 지은 업장을 소멸하고, 동참하는 제자 모두가 사바세계의 고통을 영원히 여의고, 서방정토 구품연대에 놓아 아미타부처님을 친견하고 무생법인(無生法印)을 증득하여 성불을 이루고자 발원 하였습니다.

아무췌록 사부대중은 이러한 수승한 법연의 자리에 수히 동참하시어 큰 공덕인연을 지으시기를 바랍니다.

- ◆ 입 재 : 불기 2553(2009)년 1월 19일(음 12월 24일) 월요일 오전 10시
◆ 회 향 : 불기 2555(2011)년 11월 2일(음 10월 07일) 수요일 오전 10시
◆ 계좌번호 : 농협 150090-51-038650 / 예금주 : 대원사
◆ 문의 및 접수처 : 대원사 중무소 ☎ 053) 981-8844~5

대한불교조계종 제9교구 지묘동 대원사 주지 혜룡 두손모음